

# 기독교상담과 한국인의 대인관계문화

강 경 미 교수  
(Ph.D. 그리스도대학교)

## 국문초록

현대사회의 지나친 개인위주와 물질만능주의로 인해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퇴폐하고 극단적 이기주의로 발전하면서 가족이나, 동료, 친구 등 일상생활에서 가깝게 접촉하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도 인격적인 유대관계보다는 이해관계를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며, 고유한 문화와 함께 현대식 가치관과 사고방식으로 독특한 대인관계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집합주의 문화로 '우리'라는 타인과 관계를 지향하는 '관계성 개인'으로 혈연, 학연, 지연 등 지역 및 연고주의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혈연과 인맥'이라는 무조건적인 신뢰로 연결된 한국인의 대인관계는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고 부정부패를 유발하거나 사회문제의 근본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체면과 눈치문화가 발달하면서 자기를 나타내는 행동을 삼가면서 외부로 표출하지 못한 심리적 만족이 표리부동한 행동으로 출현해서 진실한 인간관계 형성에 장애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대인관계의 문제를 심리사회학적 접근방식으로만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장 완전한 것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천국까지 계속되는 영원한 관계이다. 따라서 먼저 창조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경적으로 정립한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성경에는 이웃과의 교제의 자세로 타인의 허물을 누설치 말아야 하며(잠 11:13), 거짓말이나 위선적인 언행을 삼가고(잠 25:14), 혐의를 용납하여 용서함으로(골 3:13) 타인을 낮게 여기며(빌 2:3), 서로 사랑하고 마음을 같이 하라(롬 12:16)고 명하고 있다. 이러한 명령의 말씀은 대인관계 형성 시 요구되는 가장 완전한 교훈이며, 또한 집합문화속에서 권위와 체면, 인정을 중시하는 한국인들의 합리적인 대인관계 정립을 위해선 반드시 실천해야 할 교훈이라고 할 수 있다.

**중심단어** : 대인관계, 한국집합문화, 우리, 체면, 이웃사랑

## I. 여는 글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부모라는 두 사람과의 관계속에서 출생해서 일생을 통해 수많은 사람과 더불어 생활한다. 따라서 사람을 한자로 인간(人間)이라고 표기하며, 즉 인간이란 '사람과 사람사이'를 말하며, 이는 인간이라는 말 자체가 대인관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 개인의 건강한 삶과 인생의 성공은 원만한 대인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육적으로는 자연과 이웃과의 관계,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야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생활의 급속한 변화와 다양한 생활양식은 인간의 대인관계를 복잡하고 어렵게 하고 있으며, 또한 건설하지 못한 대인관계로 인해 주위에 사람이 없는 비사교적인 사람중에는 생활적응상의 많은 문제와 함께 이에 따른 우울, 불안, 고독, 허무감 등, 정신건강의 문제도 동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sup>

인간의 대인관계는 개인의 성숙과 함께 자신이 속한 사회의 규범과 문화, 풍속, 양식 등에 의해 사회화 되는 과정속에서 발달한다. 즉 한 개인이 사회 규범을 습득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행동이 성숙되면서 인간관계가 발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 나라의 문화속에는 그 사회에 속한 사람들의 대인관계 양식과 특징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담당하며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행동이 사회적 규범이나 관습에 합치해야 하고 더 나아가 올바른 사회적 행동을 통해 타인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 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집합적이고 인맥을 중시하는 한국문화에서 대인관계는 한국인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때로는 사회적 성공과도 연계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또한 현대기업문화에서도 한 개인의 대인관계를 크게 강조하고 인사관리에 많이 반영하고 있으며, 능력의 증진을 위해 각 집단에 속해 있는 인간관계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한 집단의 목표달성과 발전을 위해선 집단구성원들의 원만한 인간관

계를 통해 협동과 협력체계를 확립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간관계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사회심리학적 측면에서 접근해서 인간의 성격, 정서, 행동을 기초로 연구해 왔다. 하지만 성경에는 인간 삶의 기본인 사랑을 중심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즉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시었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새 계명으로 주시고 이웃과의 화목을 명령하셨다. 그러므로 사람은 먼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해야 하며,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되고 헛된 삶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먼저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한국인들의 심리적 특징과 대인관계문화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대인관계의 문제점들을 기독교상담과 접목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복음적으로 다시 정립하는 방법들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II. 펴는 글

### 1. 대인관계의 개념과 성격

인간은 출생과 동시에 부모와 가족과의 만남을 통해서 지적, 신체적으로 성장하고 사회화되면서 생활양식과 태도, 가치관등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건진해야만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고 일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발전과 함께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이와 같이 개인의 건강과 정상적인 생활, 그리고 한 집단의 운영과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대인관계의 개념과 성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1) 대인관계의 정의

대인관계란 두 사람 이상이 서로 접촉하는 관계를 말하며, 소극적인 의미

로는 일정한 조직 내에서 서로 인격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과 조화와 협력을 형성, 유지, 발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일정한 집단내에서 공동체적 목적을 위하여 집단의 협동관계를 구축하는 방법, 또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sup>2)</sup>

## 2) 대인관계의 성격

대인관계의 성격은 구조와 과정, 내용, 세 가지로 규정할 수 있다. 먼저 대인관계의 구조는 관계하는 사람에 따라서 종적, 횡적관계와 과업의 분담에 따른 역할관계 등, 인간관계가 구성되어 있는 형태를 말한다. 인간관계 과정은 어떠한 성격을 가진 개인이 어떠한 동기에 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고 반응하는지, 즉 인간관계가 진행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인간관계 내용은 서로 접촉하는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지식, 의견, 태도, 감정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구성원에 따라서 인간관계 내용은 달라진다. 이와 같이 대인관계의 성격은 매우 다양하며, 구조와 형태, 내용에 따라서 개인의 인격형성과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에도 차이가 있다. 대인관계와 연관된 행동특성은 가치관, 신념, 태도, 역할행동, 의존심, 독립심, 공격성, 협동심, 경쟁심, 직업적성 등, 광범위하며 개인의 인성과 정신건강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sup>3)</sup>

## 2. 대인관계의 특성과 전제

인간은 혼자 고립되어 존재할 수 없고 타인과의 관계속에서만 개인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으며, 다양한 사회적 관계속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행동의 변화와 함께 성숙하게 된다. 따라서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함에 있어서 개인의 특성, 사회적 문화도 고려해야 하지만 더 나아가 환경 변인으로서 개인들이 형성하고 있는 심리적 인간관계도 파악해야 한다.<sup>4)</sup> 이와 같이 대인관계는 사람과 사람사이의 심리적 관계이며, 또한 집단내에서 인본주의에 기초해서 서로의 협동관계를 구축하는 관계이다. 대인관계의 특성과 대인관

계 형성 시 기본적으로 유의해야 할 기본전제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sup>5)</sup>

#### 1) 대인관계 특성

첫째, 대인관계는 상호의존적 관계로 한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둘째, 대인관계는 역동적 변화과정으로 서로의 관계가 일정한 수준에서 지속 될 수 없으며 인간관계와 연관된 요인들이 변화하면 관계의 성격도 자연히 변화하게 된다.

셋째, 대인관계에는 선택의 가능성이 있다. 즉, 혈연관계를 제외한 나머지 인간관계에서는 자신의 임의대로 원하는 관계를 선택할 수 있다.

#### 2) 대인관계의 기본전제

첫째, 인간은 고유한 존재로서 개인마다 각기 다른 지각과 특성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인간관계의 성격은 접촉하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다.

둘째, 대인관계는 자신과 타인의 이해를 전제로 하며,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되고 더 나아가 타인을 수용하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셋째, 대인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가족관계로 우선 부모와 가족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어야만 이를 기초로 타인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

넷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선입견, 편견은 타인을 보는 관점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 3. 대인관계와 문화

문화란 한 사회의 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삶의 양식이며, 사물과 상황을 해석하고 이해를 주도하는 의미체계이기 때문에 개인의 표상구조에 영향을 주는 동시에 생활양식, 대인관계, 사회적 행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표현된

다.<sup>6)</sup> 또한 개인은 출생과 동시에 사회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개인이 속한 한나라의 문화의 가치나 이상은 개체의 자기관점이나 동기·감정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대인관계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 1) 대인관계와 문화적 차이

전통적으로 개인에게 미치는 사회문화적 영향은 개인주의, 집단주의가 있으며, 이는 서로 상반되는 개념으로 유럽과 북미의 문화와 동아시아 문화를 비교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대표하는 두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구성원들의 자아관, 가치관, 사회적, 지각, 정서, 동기 등의 차이를 연구하는 것이다.<sup>7)</sup> 인간 행동에 대한 이러한 사회문화적인 관점에 의하면 두 문화권은 사회구성의 기본단위와 가치, 인간관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고 또 이러한 관점의 차이가 그 구성원들의 행동과 생각, 대인관계에 차이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sup>8)</sup> 따라서 문화가 달라도 한 문화에서 나타나는 의미있는 행동이 다른 문화권에서 발견 될 가능성이 있으면 서로 비교가 가능하다. 그러나 각 문화권의 특성 때문에 직접 비교될 수 없는 현상이 있으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그 나라 사람들의 사회적 행위와 대인관계를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 예로 영어를 잘하는 한국 사람이 미국인들과의 교류에서 당황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문법과 단어를 배우는 것 이외에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해야 하며, 또한 그 나라 사람들과 교류하는 방법도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sup>9)</sup>

#### 2) 대인관계와 한국문화

한국사회가 급격하게 현대화 되면서 가족구조 및 인간관계에 많은 변화가 있지만 타인과의 폭넓은 유대관계가 요구되면서 대인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인들은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분야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했지만, 한국문화에 대한 자부심은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반응했다.<sup>10)</sup>

윤영진, 김의철, 박영신이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자랑스러운 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한국인의 단결력과 월드컵 성공개최, 전통문화, 강한 의지력/끈기, 민족적 자부심 등으로 응답했다.<sup>11)</sup> 이 연구에서 '전통문화'가 높은 반응을 보였다는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전통문화' 속에는 한국인 정과 예의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다음으로 한국인의 '강한 의지력, 끈기'를 자랑스러운 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사람들이 전통문화와 함께 정과 예절 및 강한 단결력을 긍정적인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또한 한국인의 대인관계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 4. 대인관계와 한국의 집단주의 문화

전통적인 한국문화에 있어 사회적 관계의 기본 축은 '우리주의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인의 인간관계는 '우리'라는 집단주의 문화의 틀 안에서 접근해야 한다. 즉 한국의 사회적 인간관계에서 개인은 독립적이기 보다는 '우리'라는 타인과 하나 되는 관계를 지향하는 '관계성 개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인의 '우리'라는 관계개념은 혈연, 학연, 지연 등 지역 및 연고주의로 형성된 유사가족주의, 집합주의, 권위주의, 인정주의 등, 문화적 특성에서 잘 나타나 있다.<sup>12)</sup>

##### 1) 유사가족주의

한국인들은 학연, 지연, 혈연의 소위 우리편 범주 내의 대인관계 틀을 설정한 후에 이를 서로 안전한 관계라고 믿고 철저히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결속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자기와 연관된 측근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수용하고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때론 과장된 신뢰를 한다. 반면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번 지켜보자는 식의 차별적인 태도가 강하다. 이와 같이 한국사회에서는 자신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 신뢰

의 정도가 매우 다르며,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도 큰 차이가 있다. 이는 개인을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와의 관계된 틀 안에 연결된 관계 자체에 대한 절대적 신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인의 대인교류는 관계와 정서가 중심역할을 하고 또한 정서는 자기중심적인 개인적 정서가 아니라 개인들을 서로 묶어주는 관계적 정서이다.<sup>13)</sup>

## 2) 집합주의

한국인은 세 사람만 모이면 단체를 만든다고 할 만큼 관계망을 형성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한국인의 문화를 소주, 오징어, 땅콩 문화라고 할 정도로 즉석에서 모인사람끼리 대화하면서 형식적으로 엮여지기 때문에 심층적이거나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서로 인격적인 신뢰관계로 발전하기가 어려우며 또한 인간관계가 손상되기 쉽다.

## 3) 권위주의

최근에 사회 여러 분야에서 차별과 격차를 없애기 위해서 권위주의 청산을 내세우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한국은 권위성이 높은 문화이다. 유교의 철학에서 시작된 예와 존경의 도리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받들고 존경하고 또한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돌보고 포용하는 하나의 규범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교의 규범이 한국사회에서는 권위주의로 변질되면서 윗사람에 대한 예우만 강조하기 때문에 인화를 도모하기 위해선 아랫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윗사람으로서 대우를 받기 위해 명예나 지위를 얻기 좋아하며, 또한 아랫사람은 윗사람과의 올바른 인간관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sup>14)</sup>

## 4) 인정주의

외국 사람들이 지적하는 한국인의 단점중에서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가장 많다. 그 예로 사회에서나 직장에서 일을 할 때 공적으로 분명하게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고나 친분 또는 인정에 이끌려서 사적



인 처리를 하면서 공정상과 합리성이 결여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정과 인정이 갈등하는 상황에서 인정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해득실을 따지는 교환적 관계와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사회생활에서 대인관계는 이해관계의 기반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주로 가족관계에서 적용되는 정의 원리나 사적원리를 적용하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더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불분명한 처리로 인해 오해와 함께 인간관계를 해칠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한국인의 특성인 정을 대인관계 측면에서 보면 상호 간에 정서적,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과 사람들 사이에 인정을 나누고 인간적인 교류를 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매우 긍정적인 요인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인들의 대인관계는 특별히 사회문화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만 인식가능하다.<sup>15)</sup>

## 5. 한국인의 대인관계 교류현상

한 사회의 문화를 집단공동체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을 함께 나누는 일치된 사상과 감정, 가치관들이 연합해서 출현하는 행동의 산물이라고 정의한다면 한국인에게도 고유한 문화와 함께 형성된 독특한 심리정서와 대인교류 현상이 있다. 대표적인 것들이 정과 한, 수치심등이 있다. 또한 한국인들이 타인과의 대인관계에서 보이는 독특한 현상들이 있으며, 대표적인 것들이 우리주의, 체면, 눈치, 핑계, 의례적 대화 등이다. 그리고 이러한 독특한 현상으로 인해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을 이해하기 어렵고 때로는 곡해하는 경우도 있다.

### 1) 대인관계에 나타나는 한국인의 고유정서

(1) 정(情): 한국 사람들의 대인관계를 기술함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한국인의 대인관계의 특징을 가장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강한 집합주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한국문화는 개체의 독립성과 개성보다는 타인과의 관계성을 중시하는 문화로 정은 한국인의

사회적 심성을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sup>16)</sup>

정이라는 개념은 서구문화의 사랑이나 애정과 유사한 감정이지만 한국에서의 정은 가족관계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단기간에 열정적으로 형성되기 보다는 장기간의 접촉과정에서 함께 고생하고 즐거움을 나누는 과정에서 서로의 이해관계를 초월한 상호수용, 상호의존을 기초로 형성되는 감정이다. 따라서 정은 가족 내 인간관계 형태가 사회관계로 확대되면서 독특한 한국문화속에서 나타난 정서로 위의 '우리' 라는 한국인의 전통적인 관계속성과도 연계되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정이 들기 쉬운 사람으로 타인에 대해 관심이 많고 애타적이며,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우직하고 착한 사람으로 자기과시나 위선이 없고 이해타산이 적은 사람이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의 정이 개인주의와 능력주의 및 사회정의와는 반대되는 심리적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sup>17)</sup>

(2) 한(恨): 한민족을 한(恨)민족이라고도 할 만큼 한은 한국인의 심리정서를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고유개념으로 한국인의 가장 심층적인 특징이면서도 또한 가장 민족적인 정서라고 할 수 있다. 최상진은 한을 자신의 불행에 대한 자책의 정념과 자신의 불행에 대한 부당함의 심리가 결합된 감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이 발생하기 위한 조건을 첫째,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았을 때, 둘째, 타인에 비해 현저하게 결핍되어 있으며 부당한 고통을 당할 때, 셋째,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범했을 때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이 한은 그 발생당시에는 분노, 원망, 증오, 적개심 등과 같은 외부지향적인 부정적 감정과 함께 불행의 원인을 외부적으로 귀인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문제가 내부적으로 향하면서 자책적인 귀인 및 초월적 방향으로 원망의 강도가 낮은 자기책임 또는 자기수용적인 순화형태로 전환하게 된다.<sup>18)</sup>

한국인의 한에 관해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한은 한국의 유교적 전통에 따른 가부장 제도를 중심으로 집합주의 문화속에서 발생하는 차별적 고통을 외부로 표현하기 보다는 자신의 내면으로 소화해야 하고 또한 겸손과 자기

주장을 드러내지 않는 불평등 수용과 함께 여성성의 문화적 특성과 결합된 정서체계라고 한다. 따라서 한은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하며 성격적으로 정이 많고 자기표현을 억제하는 내성적인 사람일수록 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sup>19)</sup>

(3) 수치심: 수치심은 자아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전제로 한 것으로 자신의 내부적 감정이지만 자기 안에 내면화된 타인의 눈을 통해 자신을 보는 것으로 자기의 존재가 타인에게 가치 있게 여감을 받는 태도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한국의 문화적인 안목에서 보면 개인의 행동이 자신의 내재화된 양심에 따른 도덕적 기준을 위반했을 때 발생하는 죄책감보다는 수치심이 더 강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sup>20)</sup> 이는 한국문화가 집합주의적 성향으로써 개인의 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 개인의 규범보다는 타자와의 역할기대와 관련해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 2) 한국인의 대인관계 교류현상

(1) 체면: 한국인의 대인관계 교류현상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로 체면이 있으며, 한국인들은 이를 매우 중시한다. 한국인들의 사회관계속에서 자연스럽게 통용되고 있는 체면이라는 용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인간관계와 사회적 상황에서 자기의 내면이나 자신과 관계된 사실과 다르게 행동함으로써 자신의 지위나 외적인 명분을 높이려는 행동의 과정으로 '사회적 안면'의 의미가 있다. 즉 '남을 대하기에 떳떳한 도리나 얼굴'이라는 의미로 한국인들이 공용하는 체면이라는 말에는 타인의 눈을 의식하고 명분을 과시하기 위해 행동하는 상황에 따른 '치레'적인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특히 체면은 신분과 직업에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심리적 보상의 역할을 함으로써 대인관계를 부드럽게 해주는 기능도 있다.<sup>21)</sup>

이와 같이 체면이 한국인의 대인관계에서 발달하게 된 것은 자기완성적 욕구보다는 남으로부터 승인받고 싶은 사회적 성취욕구가 강한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22)</sup> 또한 우리문화의 관계적 특징 중 하나인 체면은 단순한 행동적 특징이기보다는 한국의 오랜 역사속에서 '없어도 있는 척,' '몰라

도 아는 척' 하는 표리부동의 문화와 함께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체면이 떨어지게 되면 권위와 함께 영향력이 상실되며, 인격이 하락되어 무능하다는 평가와 상급자로서의 자신감을 잃게 된다. 또한 체면유지에 실패할 때 인격마저 의심을 받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인격은 지위와 상응하는 역할(품위)을 수행하는 복합적 구성체이며 성격과 구분되는 독특한 사회심리학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인관계에서 체면을 지나치게 차릴 경우에는 위선이라고 하며, 또한 체면을 안 차리면 체통이 떨어지고 믿음을 상실하게 되므로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처신해야 한다.<sup>23)</sup>

(2) 눈치: 체면과 마찬가지로 눈치 역시 한국인의 대인교류의 중요한 특징이며, 한국문화에서 관계를 해치지 않고자 하는 바람에서 발달된 의사소통의 고유한 현상이다. 한국사회에서 눈치는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이해될 수 있다. ① 현상적인 측면에서 눈치는 생활의 지혜라는 의미와 함께 단순히 의사소통의 기제이상의 것이다.

② 의사소통의 행위로서 눈치는 주는 사람과 구별하는 사람의 역동적 관계에서 전달내용 그 자체가 아니라 내용을 전달하고 싶다는 의도의 은밀한 표현행위이다. 따라서 눈치행위가 일반적 신호 이외에 어떤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의사소통의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

③ 눈치를 상하서열적인 관계에서 각 관계가 갖는 특수한 친분과 관계의 특성에 따라 기존의 관계를 존중하고 계속 유지하기 위해 아랫사람이 주로 보이는 겸손한 행위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의사소통의 심리적 의미와 함께 사용되는 눈치라는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자신의 의중이나 내적 상태를 직접적으로 노출하지 않으면서 어떤 단서나 상황으로 미루어 상대방의 마음을 짐작해서 알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눈치는 위계적인 사회에서 종속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생성된 개념이며, 또한 한국의 전통적인 유교 문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고유한 개념이다. 한국인들은 예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말로 풀어 전달하기를 꺼려했고 사람들로 하여금 언어적 표현보다는 비언어적 수단과 주변 상황에 의존하여 의미를 전달하는 습관을 갖게

되면서 눈치는 이러한 문화적 상황에서 발달된 대인관계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sup>24)</sup>

(3) 핑계: “핑계없는 무덤이 없다.”고 할 정도로 한국인은 핑계를 잘 대는 편이다. 핑계에 대한 학문적 분석을 시도한 최상진 등은 핑계를 변명 또는 정당화와 구분하고 있다. 즉 변명은 핑계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미안함과 사죄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정당화는 상황 및 자신의 행위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정당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반면에 핑계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이유를 대는 행위이며 그 부정적 결과에 대한 책임 회피성 변명의 성격이 강하다.<sup>25)</sup>

한국인의 핑계는 기능적으로 해명성 핑계와 의례성 핑계로 구분할 수 있다. 해명성 핑계는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설명으로 핑계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거짓이라는 판단이 들게 되면 효과가 없게 된다. 핑계에 대한 진실성 판단은 핑계의 내용에 대한 거짓 여부와 언어 및 비언어적 단서의 활용, 상대의 일반적 행동 및 성격특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의례성 핑계는 대인관계나 상호작용 상황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체면을 유지하거나 상대방의 자존심을 고양시키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의례성 핑계를 듣는 사람은 핑계를 대는 사람의 잘못을 굳이 따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핑계의 진실성도 문제 삼지 않는다. 한국인들이 핑계를 잘 낸다는 말은 해명성 핑계보다 의례성 핑계가 많은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 6. 한국인의 대인관계 문제

한국인처럼 대인관계를 중시하는 민족도 없다. 흔히 한국인들을 ‘동양의 아일랜드 인’이라고 하는 데 그 이유는 두 나라 사람 모두 술 마시고 노래 부르며 모여서 놀기를 즐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집합주의 문화의 특성 때문에 자기의 내면에 있는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못한다. 이는 항상 상대방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염려하고 또

한 체면 때문에 자기를 나타내는 행동을 삼가면서 자연적으로 속마음과 표면적 행동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진실한 인간관계 형성에 장애가 되는 것이다.

또한 체면과 눈치문화가 발달하면서 한편으로는 남이 자신을 눈치껏 이해해주기를 바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체면 때문에 외부로 표출하지 못한 심리적 만족이 우쭐거리는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자신의 우월성을 확인시켜 주는 기능을 하며, 남이 갖기 어려운 것, 부러워하는 명예나 지위를 성취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sup>26)</sup>

김의철과 박영신은 중고등학생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대인관계와 연관된 타인에 대한 신뢰의식을 연구한 결과, 한국인은 개별적 특성을 신뢰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관계에 따라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신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뢰할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해서 관계를 형성하기 보다는 그 사람과의 특별한 관계와 관계역할 그 자체에 대해 무조건 신뢰하는 것이다. 그 예로 부모자녀 관계에서 자녀들은 부모가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고 다른 이유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혈연과 인맥'이라는 무조건적인 신뢰로 연결된 한국인의 대인관계는 객관성과 투명성을 잃고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사회악의 근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sup>27)</sup>

한배호와 어수영은 한국사회에서 친밀한 관계의 범위를 벗어나는 개인에 대한 신뢰의 정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사람이란 믿을 수 없으므로 사람들과 접촉할 때 조심해야 한다."라는 문항에 82.5%가 찬성에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한국인은 타인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28)</sup>

안신호는 한국인들의 투표행동에서 나타난 연고주의 현상을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주의와 집단주의의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그리고 연고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혈연, 학연, 지연 등의 연결고리에 기초한 관계중심의 교류방식을 채택하기 보다는 개인의 능력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합리적으로 원칙을 고수하는 교류방식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연고주의

와 인정주의를 극복하고 보다 합리적인 교류방식을 정립하는 문제는 미래의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sup>29)</sup>

### 7. 인간관계에 대한 기독교상담학적 접근

대인관계는 개인의 적응과 성장, 정체성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주며, 특히 부정적인 대인관계의 경험은 개인의 적응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따라서 대인관계와 연관된 문제는 기독교상담에서도 내담자들이 호소하는 문제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우울이나 불안, 신경증과 같은 정서적 문제나 직업 및 학업상의 문제 대부분이 원만하지 못한 대인관계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30)</sup> 따라서 기독교상담자는 내담자의 대인관계 특성이 사회적 장면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역동적 심리치료나 대상관계 치료에서 내담자의 문제를 대인관계 측면에서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과는 일치하는 것이다.<sup>31)</sup>

#### 1) 대인관계의 성경적 기초

“관계가 없으면 종교도 없다(No relation, no religion).” 라는 말이 있다. 따라서 종교(religion)와 관계(relation)의 어원은 같다고 할 수 있다. 종교는 곧 관계,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로 요약될 수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 19:19).”는 계명을 주셨다. 따라서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성경적 기초는 이웃사랑이며, 이는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며(잠 27:10), 곤경에 처한 자를 돕는 자가 그의 이웃이며(눅 10:29, 36), 또 이웃사랑은 성경에 제시된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마 7:12, 갈 5:14)이라고 할 수 있다.<sup>32)</sup>

#### 2) 이웃사랑의 기초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의 개념속에는 가깝게는 가족에서부터 멀게는 모든 인류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가까운 이웃뿐만 아니라 먼 이웃까지 사

랑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확대된 이웃개념은 모든 인류가 주 안에서 한 형제라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한 형제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족, 귀천, 빈부, 노소, 남녀의 차별이 있을 수 없으며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의 대상이 된다. 성경은 나그네, 과부, 고아,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가난한 자, 재난을 당한 자, 등 사회적 약자나 곤경에 처한 자를 특별히 배려하고 있다.<sup>33)</sup>

이웃사랑에 대한 성경적 기초를 보면 첫째,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며, 둘째는 중보자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함이다. 셋째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관계에서 평화와 안식,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이다.

### 3) 이웃과의 화목에 관한 성경적 원리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는 삼위일체(三位一體) 하나님의 복된 관계에서 성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며, 성령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는 임마누엘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의사소통의 관계임을 알 수 있으며,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건강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개개인은 저마다 서로 다른 가치관과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역시 각각 상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상대방의 긍정적인 모습과 가치를 수용하고 그 가치와 위치를 함께 나눌 때 인간관계는 성립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자기와 타인을 수용해야 한다. 또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빌 2:3)”라는 성경의 말씀은 바로 올바른 대인관계를 위해서는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성경에 나타난 이웃사랑의 원리를 보면 다음과 같다.<sup>34)</sup>

#### (1) 물질보다는 사랑이 우선이다.

이웃사랑하면 제일 먼저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물질을 주기 이전에 사랑이 우선이며, 또한 상대방에 대한 인격적 존중이 먼저이다. 성서학자 John Calvin은 우리의 생활이 이웃을 가장 유익하게 해줄 때, 즉 이웃에게 손상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가장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반윤리적 행위로 이웃을 손상시키는 것을 피해야 함은 물론이고 일상생활의 작은 일에도 이웃에게 불쾌감을 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2) 이웃사랑에도 정의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웃사랑은 사전에 어떤 계산 없이 자발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무조건적이고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안에도 정의는 있어야 하며 만일 우리가 이웃사랑 한다고 하면서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보혈의 피를 흘리게 하신 것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인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의가 함께 있어야 한다.

(3) 하나님 사랑에 기초해야 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또한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엄한 명령이기 때문에 이를 실천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 사랑이 된다. 따라서 하나님 사랑이 이웃사랑의 원리가 되기 때문에 이웃사랑은 하나님 사랑에 기반을 두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웃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면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4)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

성경은 이웃사랑과 관련하여 이웃을 돕는 자의 내면적 자세를 중시하고 있다. 이웃을 돕는 진정한 마음의 자세 없이 자기의 선행을 남에게 보이기 위해 이웃을 돕는 것은 참된 의미의 이웃사랑이 아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의 내면적 자세에 대해 바울은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

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 선행을 바탕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 대해 이 땅에서 자기의 영광을 이미 취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상급이 없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 4)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화목케 하는 자의 유익

벽은 모든 것을 차단하고 또 하나를 둘로 나누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창문은 세상을 보는 통로로 그 둘을 하나가 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사람들이 서로 문을 닫은 채 벽만 높게 쌓고 창문이 없는 집에서 산다면 이웃과 교제할 수 없게 되면서 외로움과 함께 오해와 불신이 많아지게 된다. 하나님은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자의 유익으로 주의 장막에 거하고(시 15:1-3),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또는 긍휼히 여김을 받으며(마 5:7), 마음에 즐거움을 누리고(시 126:5), 상급이 크고(고후 5:10), 영생을 얻는다(마 25:34-40)고 말씀하셨다. 또한 이웃과 화목케 하는 자의 결과로 평안함을 얻거나 희락이 있고(잠 12:20),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에서 떠나게 하며(말 2:6),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마 5:9), 복을 받고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약 3:18)고 하셨다.<sup>35)</sup>

#### 5) 성경적 대인관계를 위한 교제방법

인간은 홀로 완전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를 필요로 한다. 성경에도 ‘서로’라는 말을 강조하여 사용하고 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갈 6:2).” 여기서 짐이란 영적인 연약함을 극복 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며 붙잡히여 기고 겸손한 것(벧전 3:8)을 의미한다.<sup>36)</sup>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자세는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고(레 19:17, 18), 서로 진실하고 화목하며(막 9:50), 서로 마음을 함께하면서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롬 12:15), 자선을 베풀고 선한 일을 도모

하는 것(롬 12:17)이다. 즉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행 2:42),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물질적인 구제를 행하고(고후 8:1-15), 서로 대접하고 위로하고 봉사하며 지체로 피차 가르치면서 복음 전파하는 일에 마음을 같이하는 것(갈 2:9)이다. 또한 성경에서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고(출 22:21), 동족에게 돈을 꾸어주고 변리를 받지 말 것(출 22:25), 이웃의 옷을 전당잡지 말 것(출 22:26, 27), 이웃을 압제, 누탈하지 말 것(레 19:11-13),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 것(레 19:16), 서로 속이지 말 것(레 25:14), 동족을 증으로 부리지 말 것(레 25:39), 이웃에게 범죄 한 경우에는 2할을 더해 배상할 것(민 5:5-8)을 권하고 있다.<sup>37)</sup>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대인관계법은 나보다 서로를 강조함으로써 자기를 앞세우기보다는 상호노력하고 용서하는 자세와 함께 이웃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으로 주로 상대방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서로 노력하고 돕는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성경에 제시된 대인관계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sup>38)</sup>

#### (1) 서로 사랑하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니아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살전 4:9, 10)”라고 서로 사랑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마게도니아 교인들에게 연보를 보냄으로써 형제 사랑의 모범을 보였다. 바울은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칭찬하면서 형제사랑에 대해 “더 많이 하라”고 말함으로써 사랑은 하면 할수록 좋은 것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베드로도 “무엇보다 더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벧전 4:8).”고 말하면서 서로 사랑할 것을 권했다.

#### (2)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는 “서로 대접 받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벧전 4:9, 10).”고 말했다. 또한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 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벧전 4:11),” 즉 자기의 힘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위한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3) 서로 겸손하라.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벧전 5:6).” 고 말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모두 낮아져야 한다는 말이다. 베드로는 교인들에게 서로 겸손한 생활로 모범을 보이도록 강조하면서 베드로 자신도 사도들 앞에서 결코 균림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겸손의 모범을 보이려고 노력했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서로에 대해 겸손할 필요가 있다.

(4) 서로 기도하라.

야고보는 고난을 당한 자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것을 역설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약 5:16).” 믿음 있는 중보의 기도는 병든 자와 고난받는 자를 구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성취됨의 소망을 가져야 한다.

(5) 서로 덕을 세우라.

바울은 로마서 14장 19절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쓸 것을 강조하였다. 바울은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서로 다투고 비판하기 보다는 기도와 사랑으로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이 급하다고 했다. 또한 바울은 로마서 14장, 15장에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서 서로 뜻을 같이 하여 선을 이룸과 동시에 한 마음으로 동행하며 연합하여(시 133:1)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권고하고 있다.

(6) 서로 속이고 거짓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회년에 대한 규례를 주시면서 “네 이웃에게 팔든지 네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를 서로 속이지 말라(레 25:14).”고 하셨다. 즉 회년을 기

준으로 서로 속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회년에는 각기 그 기업으로 돌아가도록 하셨는데 이것은 회년이 되면 너희에게 팔려온 종이라도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고 남에게 산 재산도 다시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하셨음을 의미한다.

또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너희가 서로 거짓말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거짓말하는 것을 가리켜 “옛사람과 그 행위”라고 말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은 그 모습과 행실에서 변화되어야 하며, 자기의 이익을 위해 또는 이웃을 해롭게 하기 위해 서로 거짓말을 하거나 서로 속이는 행위는 없어야 할 것이다.

(7) 서로 원망하지 말라.

야고보는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향해 서로 원망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밖에 서 계시니라(약 5:9).” 주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인내의 미덕으로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 야고보는 고난과 오래참음의 본을 보여준 선지자들과 옴의 인내를 소개하면서 마지막 때의 삶을 사는 우리는 서로에 대해 원망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8) 서로 용서하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마 6:12)”라는 말씀같이 하나님과 그리고 성도들과의 인간관계는 용서를 전제로 한다. 즉 다툼을 멀리하고(잠 16:7), 욕하는 자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다(벧전 3:9). 더 나아가 판단보다는 이해의 관계로 바울은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부요에 이르라(골 2:2)고 권고했다. 또한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피차 용서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참고, 용서 할 뿐만 아니라 이 위에 사랑을 더 하라고 했다.

### III. 닫는 글

인간은 타인과 교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부부와 가족이 있고 친척, 친구 및 많은 집단과 모임들이 있으며, 사람들은 각각 이러한 만남을 통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인간의 삶은 대인관계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간은 우연 또는 의도적으로 만남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대인관계는 개인에게 있어서는 물론 사회집단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는 현대사회는 지나친 개인위주의 생활과 함께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해지면서 도덕적으로 퇴폐하거나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초래하고 있다. 더 나아가 가족이나, 동료, 친구 등 일상생활에서 접촉하는 가까운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도 인격적인 유대관계보다는 일방적 이익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sup>39)</sup>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며, 한국의 고유한 문화에 현대식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혼합된 독특한 대인관계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집합주의 문화로 개인이 독립적이기 보다는 '우리' 라는 타인과의 하나되는 관계를 지향하는 문화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인의 '우리' 라는 관계개념에는 혈연, 학연, 지연 등 지역 및 연고주의의 특성이 있으며, '혈연과 인맥'이라는 무조건적인 신뢰로 연결된 한국인의 대인관계는 객관성과 투명성을 잃고 부정부패를 유발하거나 사회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또한 체면과 눈치문화가 발달하면서 자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남이 눈치껏 이해해 주기를 바라며, 이 때 외부로 표출하지 못한 심리적 만족이 우쭐거리는 행동이나 표리부동한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자신의 우월성을 확인시켜 주는 기능과 함께 남이 부러워하는 명예나 지위를 성취하는 것으로 이어지면서 진실한 인간관계 형성에 장애가 되는 것이다.<sup>40)</sup>

그러나 아직까지 현대의 많은 학자들이 대인관계의 문제를 사회심리학적으로만 접근해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세상의 어떠한 관계 중에

서도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장 완전한 것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천국까지 계속되는 영원한 관계인 것이다. 따라서 먼저 창조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경적으로 정립한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성경에는 이웃과의 교제의 자세로 타인의 허물을 누설치 말아야 하며(잠 11:13), 거짓말이나 위선적인 언행, 비방을 삼가고(약 4:11), 혐의를 용납하여 용서함으로(골 3:13) 근신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또한 타인을 낮게 여기며(빌 2:3), 서로 사랑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롬 12:16),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좇을 것(히 12:14)을 명하고 있다.<sup>41)</sup>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대인관계 형성 시 요구되는 가장 완전한 교훈이며, 또한 집합문화속에서 권위와 체면, 인정을 중시하는 한국인들의 합리적인 대인관계 정립을 위해선 반드시 실천해야 할 교훈이라고 할 수 있다.

### 【 참고문헌 】

- 강경미. “교회현장에서의 인간관계문제와 기독교상담.” 한국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2권(2004. 5).
- 권연옥. 「인간관계론」. 서울: 학문사. 1997.
- 김전. “목회에 있어서 인간관계의 중요성.”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김의철, 박영신. “청소년과 부모관계를 통해 본 신뢰의식: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10권(2004. 2).
- 김의철, 박영신. “한국사회와 사람에 대한 사회적 표상과 신뢰: 청소년과 성인의 지각을 통해 본 토착심리 분석.” 한국사회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10권(2004. 3).
- 김형태. 「인간관계론」. 서울: 장로신보사. 1994.
- 박영신 · 김의철. “청소년의 인간관계와 일탈행동.” 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10권(2004. 4).
- 방희정, 조혜자, 조숙자, 김현정. “한국남녀 대학생의 개인과 관계의 암묵적 표

- 상.” 한국여성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005).
- 안신호. “투표에서의 연고주의: 집단주의경향성과 관계 및 기저동기.” 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6권(2000. 1).
- 양참삼. 「인간관계 예수님의 눈높이로」. 서울: 예찬사. 1996.
- 윤영진, 김의철, 박영신. “한국사회의 문제와 발전 전망에 대한 표상: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2).
- 이수원, 이현남. “한국인의 인정에 관한 사회심리학적 이해.” 한국심리학회심포지움. (1993. 10).
- 전국보육교사교육원대학협의회 편. 「인간관계론」. 서울: 양서원. 1999.
- 정남운. “대인관계 원형모델에 따른 한국판 대인관계 형용사척도의 구성.” 한국상담 및 심리치료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6권(2004. 4).
- 제자원. “교제.” 「그랜드종합교리」. 서울: 성서교재. 1997.
- 최상진. “한의 사회심리학적 개념과 시도.”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1991).
- 최상진. 「한국인 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2000.
- 최상진, 임영식, 유승엽. “평계의 귀인/인식론적 분석.”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발표논문집. 1991.
- 최상진, 유승엽. “한국인의 체면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분석.” 한국사회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제6권(1992. 2).
- 최상진, 김기범, 강오순, 김지영. “한국문화에서 대인관계 신뢰-불신의 기반과 심리적 기능에 대한 문화심리학적 분석.” 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11권(2005).
- 한규석. 「사회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 1998.
- 한재희. “기독교상담과 한국문화.” 한국가정상담연구소. 「복음주의상담학」. 2004.
- 황규명. “한국에서의 웰빙 신드롬: 성경적 상담학을 통한 조명.”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제3차 국제신학학술대회 발표논문. 2005.
- Choi, S. C., & Choi, S-H. “The conceptualization of Korean tact, noonchi.” Presented at 10th IACCP international Congress. 7. Nara: Japan. 1990.
- KIm, U. Ethnography of Korean people and culture. in H. S. Aasen, U. Kim, & G. Helgesen, (Eds.). *Democracy, human rights and peace in Korea: Psychological, political and cultural perspective*. Seoul: Kyoyookwahak sa. 2001.
- Markus, H. R. & Kitayama, S. “Culture and self: Implication for cognition,



- emotiom, and motivatiopn.” *Psychological review*. 98. 1991.
- Oyserman, D., Coon, H. M., & Kimmelmeier, M. "Rethinking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Evaluation of theoretical assumptios and meta-analyses." *Psychological Bulletin*. 128. 2002.
- Robert, A. Baron & Donn, Byren. *Social Psychology*. Boston: Allyn and Bacon. 1987.
- Scrup, H. H. & Binder, J. L. *Psychotherapy in a new key*. New York: Basic book. 1984.

---

[ 후주 ]

- 1) 강경미, “교회현장에서의 인간관계문제와 기독교상담,”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2권(2004. 5): 40.
- 2) 권연옥, 「인간관계론」(서울: 학문사, 1997), 33.
- 3) 전국보육교사교육원대학협의회 편 「인간관계론」(서울: 양서원, 1999), 18-9.
- 4) 박영신, 김의철 “청소년의 인간관계와 일탈행동.” 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권 (2004, 4): 89
- 5) Robert, A. Baron & Donn, Byren. *Social Psychology* (boston: Allyn and Bacon, 1987), 212-13.
- 6) Markus, H. R. & Kitayama, S., “Culture and self : Implication for cognition, emotiom, and motivatiopn,” *Psychological review*, 98(1991): 224.
- 7) Oyserman, D., Coon, H. M., & Kimmelmeier, M., "Rethinking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Evaluation of theoretical assumptios and meta-analyses," *Psychological Bulletin*, 128(2002): 3.
- 8) 방희정 · 조혜자 · 조숙자 · 김현정, “한국남녀 대학생의 개인과 관계의 암묵적 표상,” 한국여성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여성」(2005): 192.
- 9) 한규석, 「사회심리학의 이해」(서울: 학지사, 1998), 464.
- 10) Kim, U. Ethnography of Korean people and culture. in H. S. Aasen, U. Kim, & G. Helgesen,(Eds.), *Democracy, human rights and peace in Korea: Psychological, political and cultural perspectives* (Seoul: Kyoyookkwahak sa, 2001), 246.
- 11) 윤영진, 김의철, 박영신, “한국사회의 문제와 발전 전망에 대한 표상: 토착심리학적 접근,” 2002년도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심리학회」(2002): 334.
- 12) 한규석, 483.
- 13) 김의철, 박영신, “청소년과 부모관계를 통해 본 신뢰의식: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사회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10(2)2004): 104-5.
- 14) 한규석, 486.
- 15) 박영신, 김의철, 90.
- 16) 한재희, “기독교상담과 한국문화.” 한국가정상담연구소, 「복음주의상담학」(2004):

178-9.

- 17) 이수원, 이현남, “한국인의 인정에 관한 사회심리학적 이해,” 한국사회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심포지움」(1993, 10): 62.
- 18) 최상진, “한의 사회심리학적 개념과 시도.” 한국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1991): 339-50.
- 19) 한규석, 476.
- 20) 한재희, 177.
- 21) 최상진, 유승엽, “한국인의 체면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분석,” 한국사회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6(2)( 1992): 137-39.
- 22) 최상진, 「한국인 심리학」(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2000), 174.
- 23) 한규석, 467.
- 24) S. C. Choi, & S-H. Choi, The conceptualization of Korean tact, noonchi. Presented at 10th iaccp internation Congress. 7. (Nara: Japan, 1990), 16-21.
- 25) 최상진, 임영식, 유승엽, “평계의 귀인/인식론적 분석,”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발표논문집, (1991): 399-410.
- 26) 황규명, “한국에서의 웰빙 신드롬: 성경적 상담학을 통한 조명,”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제3차 국제신학학술대회 발표논문」 (2005, 9): 24.
- 27) 김의철 · 박영신, “ 한국사회와 사람에 대한 사회적 표상과 신화: 청소년과 성인의 지각을 통해 본 토착심리 분석,” 한국사회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10(3)(2004): 106.
- 28) 최상진, 김기범, 강오순, 김지영, “ 한국문화에서 대인관계 신뢰-불신의 기반과 심리적 기능에 대한 문화심리학적 분석,” 한국사회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2005): 1-3.
- 29) 안신호, “투표에서의 연고주의: 집단주의경향성과 관계 및 기저동기,” 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1)2000): 147.
- 30) 정남운, “대인관계 원형모델에 따른 한국판 대인관계 형용사척도의 구성.” 한국상담 및 심리치료학회「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권(2004, 4): 39.
- 31) Scrup, H. H. & Binder, J. L. *Psychotherapy in a New Key* (New York: Basic, 1984), 219.
- 32) 김형태, 「인간관계론」(서울: 장로신보사, 1994), 89.
- 33) 양참삼, 「인간관계 예수님의 눈높이로」(서울: 예찬사, 1996), 251.
- 34) 양참삼, 252-56.
- 35) 제자원, “교제,” 「그랜드종합교리」(서울: 성서교재, 1997), 311-13.
- 36) 양참삼, 18.
- 37) 제자원, “이웃,” 「그랜드종합교리」(서울: 성서교재, 1997), 457.
- 38) 양참삼, 164-75.
- 39) 김전, “목회에 있어서 인간관계의 중요성”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1.
- 40) 황규명, 24.
- 41) 제자원, 456.

【 Abstract 】

Christian Counselling and Human Relationships  
in Korean Culture

Kyung-Mi Kang  
(Ph.D., Christian University)

Human beings are referred to as social animals that pursue their maturity and happiness through countless encounters with other people. The meaningfulness of men's lives is connected to relationships with others. Men have to keep appropriate relationships with others, nature, and God.

Modern culture has, however, deteriorated into extreme egoism and materialism. Immorality and selfishness prevail. The relationships with families, colleagues, and friends are controlled by a profit-and-loss calculation.

Korean contemporary culture has shown the same trait. Especially, Korean culture emphasizes collectiveness. An individual always identifies himself or herself as a member of "we." Family, educational, regional ties require unconditional trust among members. These ties have caused social problems, such as social irrationality and pretension, and injustice (bribery). What is worse, when Korean honor and shame system has lost its functions, it has compelled Korean people to concern what others think about them, by ignoring what they are. As a result, people get accustomed to hypocrisy, ostentation, and pretentiousness. Basic human relationships become distorted.

Modern scholars have employed psycho-social methodologies to restore deviant relationships. Of various relationships, the relationship with God is essential in that it transcends the limitation of time and space and continues until we enter the Kingdom of God. Therefore, the relationship with God is prior to that with people. The Bible offers principles to treat others: A trustworthy man keeps a secret (Proverbs 11:13); Do not slander one another (James 4:11); Bear with each other and forgive whatever grievance you may have against one another (Colossians 3:13); Do nothing out of selfish ambition or vain conceit, but in humility consider others better than yourselves (Phil 2:3); Live in harmony with one another (Romans 12:16). These verses serve as perfect instructions that have to be applied to Korean contemporary culture to enhance human relationships.

**Kye words:** Human Relationships, We, Korean Collective Culture, Honor and Shame System, Treating with Others